

|   |   |   |
|---|---|---|
| <p>제 36 호</p>  <p>2015년 6월 1일 발행</p> | <p>전국신학대학협의회</p> <h1>신학교육</h1> <p>K A A T S</p> | <p>발행처 : 전국신학대학협의회<br/>         발행인 : 유 석 성<br/>         편집인 : 이 영 미<br/>         주 소 : 서울시 서울특별시<br/>         강북구 인수봉로 159<br/>         장공관 2202호<br/>         (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)<br/>         T E L : (02)2125-0247<br/>         F A X : (02)993-3070<br/>         E-mail : kaats@hs.ac.kr</p> |
|---|---|---|

## 권두언

2015년은 해방 70년,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.

한반도는 해방되는 동시에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역사와 시대적 사명입니다. 평화통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“평화를 만드는 자들(peacemakers)이 되라”(마5:9)는 계명을 실천하는 길입니다.

한국기독교는 130년의 역사 속에서 개화기에 문명운동, 일제시대에 항일 독립운동, 해방 후 민주화운동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. 이제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을 평화통일 운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. 통일이 되면 세계 강대국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 ‘3류 분단국가’로 남게 될 것입니다.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선교도 하고 복음전파도 할 수 있습니다.

한국기독교가 2000년대가 되면서 성장도 멈추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한국 기독교가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나서면 사회적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성장의 동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한반도가 이사야와 미가가 외친대로 “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나라”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

회장 유석성  
(서울신학대학교  
총장)